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pp.117 ~ 14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지구윤리와 한국의 종교교육

- 종교간 대화의 입장 -

김 은 규
(성공회대학교)

《요약》

21세기 세계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국적 상황이 진행되면서,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이 주도권을 갖고 나가고 있으며, 제3세계와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면서 생태적 문제를 비롯한, 군사주의, 전쟁, 지역패권, 핵문제 등의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지구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지구윤리'가 나왔으며, 특별히 종교간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윤리는 종교간 평화를 그 근본 해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 언급된 거대한 상황들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다. 필자는 자칫 '종교간 평화' 논의가 위의 거대한 모순들을 정당화하고 숨길 수 있는 서구적 지배이론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에서 종교교육에서 교육과정과 종교의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요되기 보다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내용은 제3세계의 눈으로 보는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되어야 종교교육도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교의 종교의식은 최소화하여, 평준화로 인하여 학교선택의 자율성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종교적인 부담을 줄여줄 배려가 필요하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교양 수준을 높이고, 그 안에서 차이와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간 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지구적 시야를 갖는 성숙한 종교인을 길러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종교간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학교교육 현장에서부터 길러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지구화, 지구윤리, 신자유주의, 종교간 대화, 종교교육, 평화교육, 한스 쾰링

I. 서론

20세기를 휩쓸었던 강대국의 약소국가에 대한 식민지적 침탈과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안겨주었다. 동시에 그들은 약소국가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유물들 그리고 종교들에 대해서 약탈과 침탈을 자행하면서, 정신적인 유산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약소국가들에 대해서 인적, 물질, 정신적 진공을 초래했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지배질서, 곧 자본주의에 따른 새로운 지배방식에 따라가도록 요구받았다. 21세기 들어서도 세계사의 흐름은 여전히 지난 삼백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지배가 합법적인 경로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종교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강대국들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구조로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있다.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서구 기독교는 그들의 제국적인 팽창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제3세계의 종교들과 충돌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토착의 문화와 종교는 엄청난 물리적 앞에 사멸되거나 미약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것은 종교간 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

지구적 차원의 지배와 억압 그리고 갈등은 그 해결을 위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가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계에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갈등과 폭력을 줄이는 노력이 공동의 선과 진리를 공유하는 '지구윤리'를 제창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종교계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종교모임과 학술적 발표들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¹⁾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는 종교간 대화가 학교

1) Paul F.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Maryknoll: Orbis, 1985; *One earth many religions: multifaith dialogue & global responsibility*, Maryknoll: Orbis, 1995; John Hick & Hasan Askari, *The experience of religious diversity*,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 1985; Gavin D'Costa, *The meeting of religions and the trinity*, Edinburgh: T&T Clark, 2000; R. Panikkar, *The intrareligious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78; M. Forward, *Inter-religious dialogue*, Oxford: Oneworld, 2001; L. Swidler, John B. Cobb, P. F. Knitter, *Death or dialogue? from the age of monologue to the age of dialogue*, London: SCM Press, 1990; E. Hillman, *Many paths: a catholic approach to the religious pluralism*, New York: Orbis Books, 1989.

교육으로 이어지고, 특히 종교교육은 비록 어느 종단에서 설립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주요 종교들의 역사, 사상, 문화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70년대 종교간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미미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대화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종교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종교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높은 담을 쌓고 있는 현실이다. 그 근본적인 것은 교리적인 것이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은 자본주의적 사고의 교세 확장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톨릭과 불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고위 종교성직이나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³⁾ 대중적인 차원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한국의 각 종단에서는 많은 수의 초, 중, 고, 대학의 사립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학들은 학교의 설립의 이념과 종교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종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종교가 삶에서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종교가 가져다주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철학 그리고 종교적인 심성을 알려주어 순화시키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역기능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초중고의 경우 지원제가 아니고 교육부 정책에 따라 타율에 의해 배정되는 방식, 그리고 학생들은 지원 전에 종교적인 성향을 알더라도 그 학교의 전체적인 호감과 교육의 수준에 맞추어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종교과목과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전체 학교에 이른다. 사학이 세운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은 자기 학교와 같은 종교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이 수년간 그 학교에서 의무와 필수적으로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강요받는 것은 종교적 침해와 사상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196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 한국이 군사정부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였다면, 90년대 이후 서서히,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 급속히 탈권위적인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전 국민이 여론을 시시각각 만들어내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들의 토론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사회

2)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정신문화원, 종교신학연구소 중심의 학회와 동국대, 숭가대, 선문대, 감신대, 한신대, 서울대, 서강대, 가톨릭대, 성공회대, 원광대, 강남대, 대진대, 성균관대 등에서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3)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포럼, 한국유네스코 등의 단체에서 종교간 대화를 이끌고 있다.

가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유독 종교계와 학교교육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예 답을 쌓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종교계 전반이 아직 유연성(flexible)을 갖지 못하고, 자기 종교의 확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경우, 백 여년 전 한국에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 서구적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의술, 과학, 예술 등으로 신사교를 전파함으로써 일제의 강점기에서 계몽하고 독립주권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초창기에 들어온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은 백 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크게 변화 발전된 것이 없다. 여전히 그들의 방식이 학교 교육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대로 서구의 종교학교들은 오늘날 종교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 성숙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종교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이는가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종교교육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윤리’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사적 흐름을 조망하면서, 다종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 특히 종교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교의 종교교육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과목과 종교의식으로 접근을 하며, 외국에서 학교교육에서 종교간 대화를 찾으며, 평화교육이라는 보다 넓은 틀에서 종교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구윤리와 종교평화

1. 지구윤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난 3, 4세기 동안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유럽 중심으로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화 과정은 국가적인 부를 축적하게 하고, 자연히 서구 국가들은 제국의 성격을 띠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제3세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인적, 물적 착취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국국가들끼리 상호 경쟁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념대립, 군비경쟁, 지역패권, 핵무기 개발, 공해, 자연에 대한 무제한 착취로 인한 환경 생태의 위기는 지구 온난화를 통해 전 세계의 곳곳이 자연 재해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간의 갈등 또한 현실로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한 국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류 전체가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에 인류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공동의 가치와 보편적인 윤리가 가능할까라는 인식으로 세계보편윤리에 대한 구상이 대두되었다. 종교계에서는 1893년 시카고 종교의회(World Parliaments of Religions)에서 시작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어떠한 도덕적 원칙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종교간에 서로 공통적이고 근원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세계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 곧 대부분 종교의 근원적인 일치는 도덕적 선행에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⁴⁾

1960년대 이후, 세계 종교계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이천 오백년 넘게 서구 기독교가 기독교 신의 절대성과 다른 종교들에 대한 우상으로 바라보던 배타적인 태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과하면서 포용주의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을 보였다.⁵⁾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를 넘어서 다원주의 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은 종교간에 교리적 접근이 아니라 세계가 겪은 전쟁과 폭력,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긴장, 이념적 대립, 생태 환경적인 상황들이 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곧 자기종교만의 절대적 진리라는 주장을 내려놓고, 종교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도가 대두된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쾅(Hans Küng)은 [세계윤리구상](Projekt Weltethos)에서 “세계 윤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 또 종교의 대화 없이는 종교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⁶⁾ 고 언급했다. 이것은 19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지구윤리 선언(A Global Ethic)으로 채택되었으며, 하나의 슬로건이 되어 빠른 확산을 가져다 주었고, 종교간 대화의 물꼬를 여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새로운 종교관이 되었다. 이 ‘세계윤리’(지구윤리) 개념은 지금까지 국가 안에서만 보던 시야를 세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구촌 전체의 윤리적 책임을 말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그에 관한 글과 논문은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

4) 마커스 부레이부룩, <기조강연>, 《21세기를 향한 종교간 이해와 지구윤리》, 한국종교인평화회의/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서울, 1993, 15쪽.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6) 한스 쾅(Hans Küng), 《세계윤리구상(Projekt Weltethos)》, 안명옥 번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2. (R. Piper GmbH & Co. MG, Munchen, 1990; Benedict Press, Waegwan, Korea 1992), 15쪽.

판적 입장을 가져보려고 한다. 그는 크게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소유욕과 소비욕을 불러 일으키는 자본주의가 결국 인간을 경제적으로 옴아매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그는 대안으로 세계윤리를 제시하면서 종교 윤리를 내놓고 있다. 즉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폭력, 자연에 대한 착취 등의 제반 현실의 문제들을 자본주의와 여전히 제국으로서 위력을 보이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로 전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권력을 지적하기보다는, 새로운 종교적 이념, 곧 세계윤리를 만들어 제창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의 한계인 것이다. 물론 종교학자이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결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세계윤리구상’이 전세계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한계들은 그 이후에도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스 쾅이 2003년 한국에 왔을 때, 성공회대학교에서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Relations)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의 최근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미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실력자들과 교분들을 쌓고 있으며, IMF 등 세계경제기구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의 근현대 역사관을 부록에서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 의해서 유럽의 낡은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의 몰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미국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명분없는 침공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세계관과 역사관은 다분히 1세계적이고,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공헌을 추켜세우고 있다. 반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전세계를 꼭 묶어놓는 제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OECD의 국가, 유럽연합 등을 민주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사고는 지구윤리를 만들 때나 최근까지도 서구의 1세계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대안으로 ‘지구윤리,’ 그리고 그것의 핵심을 ‘종교평화’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서구 지배자들이 이것을 지배이념으로 내세워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스 쾅의 입장에 대해, 필자는 그의 슬로건이 근본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종교간의 갈등만을 해결하면 종교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것은 본질(강대국 중심의 지배질서)과 현상(종교 평화)을 뒤집어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에 의해 주창된 ‘종교간 평화’는 본질을 언급

하지 않고 현상만을 주장함으로써, 본질, 곧 지배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작은 걸림돌(종교간 갈등)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자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정통신학이 비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있고, 그것은 세계대전 속에서도 독일의 본훼퍼(Dietrich Bohnhoeffer) 등 소수의 신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관념적인 주제들에만 매달린 것⁷⁾,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며,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던 교토학파⁸⁾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역사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으로 일관했던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이같은 비정치적이고 상황을 배제한 기독교나 불교의 입장은 오히려 제국주의와 식민지 팽창의 입장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지배이념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종교간 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진정 “종교간 평화가 있다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물론 부분적인 평화는 이룰 수 있지만, 회의적이라고 본다. 이 슬로건도 정치, 경제적 상황, 곧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패권적 체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역으로 강대국의 지배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종교간 평화’의 주제를 비역사적이고, 비사회적인, 관념적인 주제로만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현시대의 ‘종교간 평화’는 종교간 교리적 대화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오늘날 지구촌을 덮고 있는 지구화와 신자유주의⁹⁾ 경제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비역사적인 주제로 전략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세계의 종교들이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지배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7) 유럽의 제국주의가 식민지 팽창을 하고,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던 때에, 칼 바르트(Karl Barth)나 볼트만(Rudolf Bultmann) 같은 신학자들은 비정치적이고 개인의 실존주의 철학에 간여있었으며, 이같은 영향은 개인주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다.

8) 교토학파는 불교적 토대에서 서양철학을 접목시킨 일본의 대표적인 학파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를 중심으로 1920년대 전후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했다. 불교의 대표적인 공, 절대무 등의 사상과 서양의 에카르트, 니이체, 하이데거 등의 철학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필자는 그 내용 자체는 지금도 많은 것을 배울 만큼 훌륭한 내용이라는 것에 동감을 한다. 이에 관해 소개한 책으로는 이찬수,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서울: 다산글방, 2003.

9) 지구화와 기독교연구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성공회대학교출판부, 2000.

2. 지구화, 신자유주의와 종교평화

필자는 지구윤리가 “종교 평화없이 세계 평화없다”는 슬로건이 구체적인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지구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추상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구유럽의 세계 지배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지배논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구윤리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이 지구자본을 지배하고,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 곧 사유재산권이 부여되는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과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가 빠른 통신기술로 거대한 자본이 활발한 이동을 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약소국가들은 거대 자본의 위력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착취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예측과 문화적인 예측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생명과 자연 생태계는 강대국 중심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면서 오히려 지구적 차원에서 생명질서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전세계를 지배하는 역사상 초유의 제국의 성격을 띠는 가운데, 대부분 자원과 자본주의 질서는 미국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럼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과 민중들은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종교 역시 지구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복은 “종교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권력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세력에 의하여 종교는 자유경쟁을 위한 개인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¹⁰⁾

또한 박승호에 따르면 “‘지구화’는 자유화(탈규제), 사유화(민영화), 개방화, 유연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한다”¹¹⁾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초국적 자본, IMF, IBRD, WTO 등의 거대 자본이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의 이익이 1세계 국가들 중심으로 집적되게 하며,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의 위력 앞에 불안정한 고용에 따라 언제든지 고사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결국은 1세계 국가들을 제외한 전지구적인 가난을 초래하는 합법적인 경제적 ‘신제국주의’ 정책이며 논리인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초국적 헤게모니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미국을 초극으로 하고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관계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확고

10) 김용복, “종교사회사상,” 성공회대학교신학연구소 엮음, 《대화를 넘어 서로 배움으로》, 서울:맑은울림, 2004, 36쪽.

11) 박승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서울:성공회대학교출판부, 2000, 11-59, 16쪽.

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는 논리는 작은 단위의 교회, 사찰, 학교 종교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와 사적 재산의 소유는 종교들의 기복신앙에서 합리적인 정당성을 받으며, 사회적 나눔보다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영합하는데 더욱 앞장섬으로써, 이들로부터 헌금 내지는 시주금을 받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교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사회정의와 생명, 평화, 자유라는 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축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비사회적이고 비역사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가령 기독교의 경우, 교회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고, 서로 무한 경쟁을 벌이면서 보이지 않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미 상가 건물마다 한 두 개의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으며, 이들은 서로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으며, 신에게는 절대적으로 매달린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힐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위해 교파가 다른 교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곧 교리가 다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영토 확장 (territorial expansion)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존 경쟁이 성직자들의 의식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무인가 신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도 선교의 확장논리, 뒤집어 표현하면 자본주의의 무한논리에 사로잡혀 목회 지원자들을 매년 대거 모집함으로써 대학원과 교수들은 경제적 부를 얻는다. 과잉으로 양산되는 졸업자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이기적인 경쟁의 땅에 버려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의 과제로 넘기고 있다.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회자들은 자격미달의 외국박사라도 갖기 위해서 해외에 엄청난 달러를 유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무인가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자질들이 문제시 될 수 있으며, 교단과 교회의 권력에 절대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신학생 모집과 졸업 후 이들에게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 정글의 법칙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목회자들은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에 고용과 떠남을 반복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화되어 이들이 성직자로서 갖는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한국기독교는 신학교육부터 목회현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지만,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에 와있다.

신자유주의는 학교 교육에서 경쟁을 강화시켜, 약육강식의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입시라는 제도는 여기서 살아남은 자만이 생존하며, 그것은 미래에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다.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학생 개인들의 철저한 이기적 경쟁심에 모든 근간이 세워짐으로써, 교육의 목적은 변질되고 쇠락하였다. 교사들 역시 제도교육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오히려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유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좋은 대학에 학생들을 보낸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성보다는 어느 과든지 합격시키는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는 학교교육은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의 종교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단이 사립학교를 세운 목적은 교육 목적과 함께 종교의 선교 혹은 포교가 큰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는 많다. 어릴 때부터 종교의식을 갖도록 하여, 험난한 인생을 정신적으로 잘 버티어 나가도록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목적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적용시켜도 된다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의무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입학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종교적인 강요는 학생들이 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가까이 오지만 한번도 문제제기 조차되지 않았고, 각 종단이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자기 종교의 확장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의식과 종교과목은 모두가 예외없이 참여해야 하는 강제적인 의무가 대부분이다. 곧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몇 년을 교육시키면 그 종교로 오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고이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선택권을 보여주고 교육을 하는 것과 한가지만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교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에서 종교들의 병폐 현상들을 그동안 기복 의식에서 찾았으나, 이제는 한국사회가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에 놓인 만큼,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III. 한국에서 종교교육의 현실

1. 교육과정의 변화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계 초중고 학교는 198개교, 가톨릭계 학교는 79

개교, 조계종계 학교는 22개교이다. 그 외에 민족종교계 학교 등이 있다. 개화기부터 설립되어 해당 종교를 가르치고 교육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교육부의 권한 밖에 있으면서 학교 재량으로 교육해 왔다. 1980년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종교 과목으로 채택되었지만 체계적인 종교 교과서도 집필되지 않았다. 이후 6차 교육과정까지도 종교교육은 자기 종교 중심적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육과정과 종교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그 내용은 종교교육을 더 강조하면서 특정 종교보다는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를 두었다.¹²⁾

①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②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③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이것을 분석하면, 특정 종교에만 제한받기보다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했으며, 종교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 자연과 우주, 과학과 생명에 대한 이해, 다종교 문화에 있는 한국에서 건강한 종교인으로서 삶과 가치관, 종교 공동체의 이념, 각 종단 학교의 종교의 경전과 교리와 역사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종교교육에 대해서 불교계, 가톨릭계, 기독교계(예수회 장로회) 학교에서는 적극 수용하지만, 보수적인 학교들로 구성된 기독교학교연맹은 종교의 다양한 이해에 소극적이다.

한가지 예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29-130쪽.

〈표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영역	단원	내용(주제)
Ⅰ. 종교 일반이해	1. 인간과 종교	o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o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o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o종교의 의의와 역할
	2. 종교경험의 이해	o여러 가지 인생문제 o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o경전과 종교 규범 o종교 의례와 종교적 실천
Ⅱ. 종교 다양성의 원인과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o종교 사상과 배경 o참된 것과 깨달음 o종교의 특성 이해
	4. 세계 종교와 문화	o유교와 도교 o불교 o크리스트교 o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Ⅲ.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이해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o다양한 인간관 o종교적 인간관 o종교적 자연관 o과학과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o한국 불교와 문화 o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o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o한국 무속 신앙과 민속 종교
	7. 종교 공동체	o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o종교의 사회적 기능 o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o종교적 인격형성
Ⅳ. 특정 종교이해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o경전, 교리 역사 o종교적 생활 o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o나의 종교 생활 설계

영역	단원	내용(주제)
Ⅰ. 종교 일반이해	1. 인간과 종교	o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o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o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o종교의 의의와 역할
	2. 종교경험의 이해	o여러 가지 인생문제 o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o경전과 종교 규범 o종교 의례와 종교적 실천
Ⅱ. 종교 다양성의 원인과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o종교 사상과 배경 o참된 것과 깨달음 o종교의 특성 이해
	4. 세계 종교와 문화	o유교와 도교 o불교 o크리스트교 o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Ⅲ.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이해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o다양한 인간관 o종교적 인간관 o종교적 자연관 o과학과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o한국 불교와 문화 o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o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o한국 무속 신앙과 민속 종교
	7. 종교 공동체	o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o종교의 사회적 기능 o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o종교적 인격형성
Ⅳ. 특정 종교이해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o경전, 교리 역사 o종교적 생활 o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o나의 종교 생활 설계

영역	단원	내용(주제)
Ⅰ. 종교 일반이해	1.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2.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 규범 ○종교 의례와 종교적 실천
Ⅱ. 종교 다양성의 원인과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4. 세계 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Ⅲ.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이해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한국 무속 신앙과 민속 종교
	7. 종교 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형성
Ⅳ. 특정 종교이해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 생활 설계

7차 교육과정에서 채택된 종교교육은 기존에 특정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던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내용에서 객관적이고, 종교들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종교인으로서 갖는 공동체적, 사회적, 세계적 책임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도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도 소개하며, 한스 쾅의 ‘지구윤리’와 종교적 평화들에 관한 주제들도 언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핵 확산금지, 인구폭발, 식량, 기아 등의 문제들도 알리고 있다. 또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통해 자연과 생태의 주제들도 기술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종교에 바로 접근하기보다 인터넷, 성문제, 약물중독, 죽음, 임신중절, 안락사, 인간복제 문제 등 현대적인 윤리 문제들을 강조하고, 불교, 이슬람, 유교, 기독교 등의 이웃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말의 초중고 학교들의 종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는 21세기의 다양한 사회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보조를 맞춘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변화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사고를 가져다 주었지만, 여전히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특정한 종교에 대한 강요는 시대가 변하는 세계적이고 국내의 추세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육방식

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의 내용들과 관계없이 여전히 종단 중심의 교육만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 경직된 종교의식

모든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한다. 기도와 묵상에서부터 그 종교의 의식을 거행한다. 일주일에 한번 또는 그 이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것은 종교교육이 단순히 지식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삶 속에 체현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종교의식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가급적 종교적 색채가 덜 나게 하며, 교양강좌 형식을 도입하여 종교적 거부감을 덜 갖도록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대학교에서는 충분한 재정으로 연극, 무용, 영화, 음악공연 등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초중고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학교에서도 종교의식 시간에 다른 종교인들을 초청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다. 개신교 대학교에서 가톨릭 신부를 초청했다가 동창회와 학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개신교 목사가 불교대학원에서 특강 시간에 종교간 대화를 언급했다가, 교회로 돌아가서 홍역을 치루고, 끝내 말도 번복하고, 다시는 대화를 갖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에 스님도 초청하고, 개신교 목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전해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강당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연극, 영화, 영어성경 등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 대학교는 2년, 또는 4년 전체를 출석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초중고 학교는 졸업 때까지 의무화하고 있고,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일도 쉽지 않으며, 다양한 선택권을 마련하는 것도 거의 힘들다. 오직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 모아, 한 번에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끝내고 만다. 곧 주입식 교육의 연장에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말로 재미있게 진행해보려고 하지만, 지루함은 계속된다. 이에 반해 동국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종교의식 참여는 없으며, 한달에 한번 있는 법회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란 학생들이 다른 종교에서 의식을 거행하는데 참여하는 데에서 오는 정신적인 압박은 무척 크다고 본다. 이단시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한 강요된 종교의식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종교교육 시간에 지식을 배우는 것

은 수용하지만, 종교의식까지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배운 초중고 학생들이 종교에 대한 선택을 자율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정해 놓으면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학교의 권위를 내세워 종교의식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 교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성당과 교회, 사찰, 유교, 민족종교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학교에서 종교적으로 가두어 놓는다고 그것만 선택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자.

서울의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교장 탁준호)의 고3생 강의석(18)군이 종교의식 강요에 반발하여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조치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종교적인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종교수업과 의식에 참여시키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사학 측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중등학교 현실에서 모든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오랫동안 잠복되어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전국적으로 종교 사립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며, 종교의식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강의석 군은 “비기독교인이더라도 매일 아침 학급예배 때는 번호순으로 돌아가며 기도를 해야 한다. 또 매주 수요일 전교생 예배 때도 찬송가를 부르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 1학년 때는 음악 수행평가로 주기도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뽕뽕이로 학교에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¹³⁾이라고 주장했다. 강 군은 “저는 기독교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강요하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¹⁴⁾라고 주장한다. 종교의식에 대한 강요는 아침 자습시간 예배 또는 기도가 이뤄지기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맞거나 운동장에서 풀뽑기의 벌이 가해지기까지 한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종교 등 교양과목은 학생 선택이 원칙이고 시험을

13) 〈중고교 종교교육 인권침해 논란〉, 《한국교육신문》 2004. 6. 30.

14) 강의석 군의 이같은 주장은 조선, 한겨레, 동아, 문화, 경향, 중앙, 오마이뉴스, 뉴스엔조이, 프로메테우스 등 언론에 321회 중요한 종교 소식으로 기사화되고 있다(2005년 5월 25일 현재)

치르거나 성적을 낼 수도 없으며 예배 등 정규교과 외의 활동도 희망학생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광고 교장은 “성경과 예배 등 종교 교육은 철학적 차원에서 이뤄지며 시험이나 강요는 없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예배나 성경 과목을 완전 자율선택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종단이 결정할 문제다.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건학이념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학생이 전학 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종교 사립학교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그후 강 군은 제적되었고, 다시 복학하였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목실장 류상태 목사 역시 직위해제된 상태이다(2004.7.15).

기독교계의 박경양 목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는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¹⁵⁾:

종교행위도 종교교육도 강제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선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의 자유를 포함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내가 믿고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남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강요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채 드러지는 예배는 예배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예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행위입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예배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1998년 대법원이 채플 학점의무 규정에 대해 숭실대 학생에게, “사립대학의 장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권에 근거해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플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의 채플은 종교인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기에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04년 1월 국가인권위는 이화대생이 교내 채플 의무 수강에 반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05년 3월부터 연세대 채플실 앞에서 5명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몇몇 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 사립학교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뢰의 뇌관과 같은 사회적 주제이다. 언론이나 종교

15) www.peaceofchrist.net 이 내용은 KBS-TV, '정관용의 열린토론' (2004.10.1)의 대담을 발췌한 것이다.

계에서 잠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에 이슈가 되고 나서는 후속으로 어떤 개선책이나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평준화 정책 이후 학생들의 선발권이 없고, 학생들 역시 자기 의도와 다르게 무차별 배정받는 현실에서 종교교육 정책은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립학교의 종교적 이념만을 내세워도 안될 것이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숨통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실험을 꾀하고 있는 성공회대 교목실장은 “중간공리¹⁶⁾를 만들어, 종교가 다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한다면 거부감없이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곧 종교적 이념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녹아 담겨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V. 외국의 종교교육의 사례 : 대안을 찾아서

1. 북아일랜드 평화교육¹⁷⁾

1) 이뮤 (EMU) 교육

북아일랜드는 영토로 인해 영국과 오랜 분쟁을 겪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국가이며, 영국은 성공회와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는데, 북아일랜드는 영토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 따라서 가톨릭과 기독교의 갈등도 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교사 양성기관인 스트랜밀리스(Stranmillis) 대학에서 '상

16) 미국의 기독교사회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가 주장한 것으로 절대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에 도달하는 중간공리를 두어 근사치로 접근을 한다는 개념이다.

17) 이 자료는 1995년 시작된 평화교육 연구모임이 만든 자료임을 밝힌다. 이 모임은 인권, 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평화교육의 이념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교실 속에서 평화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교실 속에서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평화교육 모형 개발을 위해 교수와 교사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97년에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민족 갈등 현장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코리밀라 공동체가 벌이고 있는 평화운동 방법과 학교 현장에서 평화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호 이해 및 문화유산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그 곳 사람들의 이론과 실천의 양쪽 측면을 둘러보았다.

호 이해와 문화적 유산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 Cultural Heritage: EMU/CH, 줄여서 [이뮤]라고 부름)'이 있는데, 이 교육은 지난 20년 동안 평화운동과 '이뮤'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퀸즈(Queen's) 대학의 노먼 리차드슨(Norman Richardson) 교수가 '수용, 공정, 상호 존중이라는 정신 속에서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노먼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①자신과 다른 이를 존경하도록 가르치기 ②갈등을 창조적으로 다루고 이해하기 ③상호 의존성을 깨닫기 ④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가 그 핵심을 이룬다. 그 근본은 역시 종교적 갈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학교는 카톨릭 계의 학교와 개신교 계의 학교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른 종교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종교집단이 두 종교 출신의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통합학교'가 33개에 이를 만큼 늘어났지만, 아직 전체 학교수의 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1992년 정부가 법령을 만들어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하여 모든 학교에서 '이뮤'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두 집단 사이에서 서로 종교간 평화를 이루며, 사회적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육의 현장을 보는 것이다. 그 교육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 자기들만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종교적 문화를 가진 아이들과 직접 만남으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곧 수업에서 자기 종교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이해시킴으로써 성숙한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2) 코리밀라 공동체 (Corrymeela Community)

학교교육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리밀라 공동체 (www.corrymeela.org.uk)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대립과 분열, 폭력과 정쟁을 막고 치유하기 위해 지난 33년 동안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이다. 현재는 4 명의 상근 직원과 1백 70명의 회원, 그리고 700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교육과 관련하여 코리밀라의 활동은 ①지역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사업 ②청소년 복지사(Youth Worker)들이 주축이 되는 청소년 사업, 그리고 ③신·구교도 사이의 화해를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교육으로 나눈다. 특히 이곳에서는 두 종교 집단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서로 연대감과 이해를 깊게 한다. 즉, 다

른 관점과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 상대방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대감, 소속감, 의사소통, 정치적인 문제, 갈등, 믿음 등과 같이 특정한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거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동체 안에 가득한 어떤 분위기를 직접 느끼도록 하고 있다. 남을 강제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며, 상대방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갖도록 한다. 예배실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일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또한 어떤 특정한 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2. 영국의 종교교육

영국은 성공회가 국가종교인 나라이다. 현재 수상의 최종 임명도, 캔터베리대주교의 임명도 여왕이 하고 있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성공회이고, 일부 가톨릭과 이슬람, 힌두교가 소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도 일반학교와 종교학교가 있는데 주로 성공회와 일부 가톨릭 학교들로 분포되며, 사립학교들도 성공회가 많다. 이슬람 지역에는 공립학교이지만 이슬람 학교가 있다.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종교일반을 위주로 교육한다. 이것은 아마도 1960년대 이후 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종교간 대화 운동의 결과로 보인다.¹⁸⁾ 그래서 성공회 학교들도 성공회 위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 내용은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불교, 시크교 등의 특징을 가르치면서,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고3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GCSE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종교과목을 선택하면, 이들 종교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들을 갖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성공회에서 세운 학교 가운데 일주일에 한번씩 채플/미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성공회 학교도 교장과 선생님의 재량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학기 시작과 끝, 중간에 특별한 절기에만 의식을 행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성공회의 교인 수가 날로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학교의 종교교육을 강제하지 않는다. 만약 교단

18) 존 킁(John Jick)은 버밍햄 대학교에서 은퇴하였으며 성공회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정신에 영향을 받았으며, 종교간 대화의 세가지 범주(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를 주장한 앨런 레이스(Alan Race)도 성공회 신부로 현재도 종교간 대화를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70년대에 많은 성공회 신부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종교간 대화 운동을 벌였으며, 현재는 이슬람, 힌두, 가톨릭, 성공회 등이 많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간 대화를 할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책으로 학교에 영향을 주어 교세확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 식으로 종교교육을 더욱 강화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도 학교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계 초중고 학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톨릭 성당의 사제 추천서가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학교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입학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와 같은 명문대학들이 성공회가 세웠고 채플린이 성공회 신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교생 의무 채플같은 것은 없다. 학생들은 단지 예배가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하면 그뿐이다.

영국의 종교교육 정책은 종교에 대한 자유를 줌으로써 학생, 교사, 교장의 자발적인 결정이 존중되며,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길러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한국의 종교학교들 역시 종단의 입김을 받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3. 미국에서 종교교육

미국은 1960-70년대의 인권과 평화, 반전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퀘이커(Quaker)의 평화운동이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주었으며, 종교간 평화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공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사립학교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를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반영하듯 종교교육도 자기 종교에 속한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을 알려주며, 그 방향에서 학교가 속한 종교를 가르치며, 인생의 의미들을 폭넓게 가르치고 있다. 2005년 5월 17-18일 양일간 한국유네스코 주최로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기: 신앙, 문화, 윤리 그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Teaching Respect for Difference: Issues of Belief, Culture, Ethics and Values)라는 주제로 평화교육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평화교육을 위해 힘쓰는 콜럼비아대학교 평화교육센터의 베티 리어돈 (Betty A. Reardon) 명예교수는 “학교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과 문화, 종교들을 나누기 위해서 교육방법들도 개발하고, 현장방문, 대화, 주제토론 등 실제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종교를 단지 객관적으로 가르치며, 부모와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종교재단에서 세운 사립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종교로 인한 갈등이 없다”고 말한다.

4. 필리핀에서 종교교육

필리핀은 인구의 80%가 가톨릭이며, 8%의 개신교, 5%의 이슬람, 나머지 종교 및 무교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히 종교재단의 사립학교들이 많지만, 입학때 이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학을 하고 있다. 필리핀은 대부분 가톨릭과 기독교이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들이 종교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특별히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은 광석이 풍부하고, 비옥한 고원, 방대한 열대림과 농경지, 태풍없는 기후와 풍성한 어족자원으로 인해 가난한 정착민들에게는 “젖이 풍성한 암소”로 비유되는 곳이다.¹⁹⁾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페인, 미국, 일본의 외세의 점령과 이에 맞서는 토착민들의 저항 등이 있어온 곳이다. 착취와 빈곤, 불안전과 폭력이 난무하는 민다나오는 사회주의계 이슬람과 정부군 사이에 총격전이 수시로 있는 위험한 곳이다. 가톨릭 (950 만명), 모슬림 (270 만명), 토착민 (200 만명)으로 분포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다. 이번 평화교육세미나에 초청받은 필리핀 미리암대학교 평화교육센터 소장 로레타 카스트로 (Loreta Castro) 박사는 2003년부터 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학교와 모슬림 학교가 학교간에 대화를 하고, 직접 학생들끼리 만나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종교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야기하며, 수필 쓴 것을 뉴스레터에 공동으로 싣고 있다고 한다.²⁰⁾ 종교교육 시간에는 서로 다른 종교의 사상과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모슬림 학교는 주말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코란과 아랍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또한 “투루간”(Turugan)이라는 원주민 학교는 전통가치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가져야 할 인권과 권리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주교와 원주민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간의 모임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들에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²¹⁾

V. 평화교육과 함께하는 종교교육 :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교육

앞 장에서 외국의 평화교육을 포함한 종교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

19) 박성용, 〈필리핀 민다나오 원주민들의 문화.종교적 갈등 연구〉, 《아시아의 종교 분쟁과 평화》, 서울:오름출판사. 2005. 85-147, 99쪽.

20) 2005년 5월 20일, 성공회대학교 특강.

21) 박성용, 앞의 책, 133쪽.

았다.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종교교육이 체계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첫째 평준화에 따른 추천배정으로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 사립 학교의 경우 종교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둘째 대학입시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 자체가 부각될 수 없다. 종교교육 내용도 심화시키는 과정보다는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종교교육이 종교 본래의 목적보다는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의 정신력을 더 강화시키고 도태시키지 않도록 이끄는 보조적인 역할이 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한 종파와 교과 중심으로 종교교육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종교적인 사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만큼 교실교육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하다. 만약 교사가 다양한 종교적 사고와 종교간 대화를 언급하려고 해도, 학교의 권위 속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는 교단으로부터 압력도 예상되기 때문에 금기시되어 있는 형편이다.

종교교육은 공부의 한 분야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종교의식은 또 다른 상황이다. 종교의식은 진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혹은 성인에 대해서 자기의 경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종교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드러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대외적인 여건들은 결국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에서 종교교육은 평범한 학교들에서도 이해의 폭들을 넓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며, ‘평화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²²⁾ 곧 지구촌 평화라는 근본 인식하에 ‘종교

22) Francis I. Arinze, *Religions for peace*, Darton: Todd Press, 1985; Carrie Gustafson & Peter Juviler, *Religion and human rights: competing claims?* New York: M. E. Sharpe, 1999; John B. Taylor, *Religions for human dignity and world peace*, Geneva: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1986; Homer A. Jack, *World religions and world peace: the international interreligious symposium on peace*, Boston: Beacon Press, 1977; Jacob K. Olupona, *Religion and peace in multi-faith nigeria*, Ile-Ife: Obafemi Awolowo University Press, 1992; John Ferguson, *War and peace in the world's religions*, London: Sheldon Press, 1972; Leonard Swidler, *Religious liberty and human rights in nations and in religions*, New York: Hippocrene Books, 1986; Robert Traer, *Faith in human rights: support in religious traditions for a global struggle*,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간 대화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과 기독교와의 마찰 속에서도 평화교육과 종교간 평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극단적인 유혈을 일으키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분쟁지역에서도 가톨릭 학교와 이슬람 학교가 평화 차원에서 종교간 대화가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종교교육은 종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전달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교육의 틀 안에서 새롭게 방향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약간 범주를 넓혀 한국사회를 보았을 때, 한국에는 이미 10년 넘게 40여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1998년 UN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가 1억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제3세계의 자국에서 떠나와 중진국 이상 국가들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그들은 한국에 와 열악한 공장 작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한국민의 사회적 냉대는 심각한 수준이며, 배타적인 한국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가의 백인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존경심을,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유색인들에 대해서는 인격 모독은 물론 물리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들도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 종교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자기들의 종교가 자신들의 정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요 지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 특히 교회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선교대상으로만 상대하여, 이들의 문화와 종교적 사상들 그리고 인권피해 문제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종교교육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더 깊게는 평화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이 오늘 한국의 종교계 현실이다. 한국은 이미 40 만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환경에 놓여 있으며,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면, 앞으로 이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종교교육 문제는 단지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주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평화교육과 연계한 종교간 대화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타적이고 강제적인 종교교육은 인생에서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할 수 있다. 다종교 문화에 있는 한국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경우, 결혼 전에도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 사고가 달라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쪽 집안의 완강한 자기 종교의 고집을 예상해서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부부간의 갈등은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등 가족관계에서 종교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혼 증가에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와 의무로 종교를 배운 것이 학교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을 같이 보면서 살아야 하는 가족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강요와 의무감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율적인 선택의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곧 성인이 되고, 평생 가정을 이끌고 가면서도 서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할 줄 모르고, 강제적인 강요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서 이미 수동적인 자세로 몸에 젖어버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일생을 종교로 인해 힘들게 살아야만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곧 종교가 제도교육의 문제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까지 획일적인 사고와 경직성을 요구함으로써, 종교가 진리에 대한 자유로움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억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종교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평화교육 차원에서 다시 재구성되어야 하며, 차이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넓게 깊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지구윤리와 깊히 연계되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군비 축소, 비핵문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 환경생태, 여성인권, 인종간 계층간 갈등, 생명, 평화, 종교간 갈등과 화해 등의 주제들이 함께 거론되면서, 학교의 종교교육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세워진다면, 종교들간에 작은 교리적, 현학적 논쟁으로 갈라지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 간에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지구윤리와 종교교육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지구윤리는 더 이상 종교의 범주 안에서만 평화를 찾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세계를 밑바닥에서 거대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국적 상황에서 함께 고려할 때 종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종교교육은 7차 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종교들에 대한 객관

성을 확보했지만, 실천적 과제들이 담보되지 못했으며, 지구적 주제들(global issues)들과 동떨어진 교리적 이해에 제한되어 있음을 본다. 이것은 현대에도 얼마든지 종교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과 사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현실적으로 종단과 교단 그리고 학교의 책임있는 교장이 종교의식에 대해서 자율성을 줄 수 있을 만큼 열린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지도자들의 입김을 많이 받는 종교학교의 종교교육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하면서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입지가 거의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교육은 그 자체로서만 풀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틀을 제시하는 평화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교과목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개발하며, 종교의식에서도 최소한으로 의식을 줄이고, 평화 주제들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구적 사고를 갖게 하는 교양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다. NGO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강좌를 늘리면서,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데, 단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러한 지구적 사고를 함으로써, 작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지만, 지구촌 평화단체와 종교간 대화를 여는 기관들과 연결하며 작고 큰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소양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교육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더 이상 학교의 종교교육은 자기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의무적으로 가두어 놓고, 마음껏 선교와 포교를 한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진정 피교육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수용성을 기르며, 종교적인 깊은 대화도 나오며, 종교간의 진정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대의 종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곧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는 이들이 가정 안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가정의 진정한 화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에서도 소외된 사람들과 한국 전통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인 이주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종교교육은 단지 학교교실과 대강당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속에서 성숙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학교가 폭넓은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고등학교 종교》.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2.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10.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김용복. 〈종교 사회사상〉,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소, 《대화를 넘어 서로 배움으로: 종교간의 만남을 위하여》, 서울: 맑은울림, 2004.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고등학교 종교(기독교)》(상·중·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불교교육연합회. 《고등학교 종교(불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2002.
-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 이동익. 〈한스 쾅의 세계윤리구상〉, 《가톨릭 신학과 사상》, 15호, 1996, 봄
- 이찬수. 〈타종교의 신학〉, 《신학사상》 93집,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1996
- 이한오. 〈평화를 위한 세계윤리: 한스 쾅의 세계윤리구상을 중심으로〉, 서울: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02.
-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 지구화와 기독교연구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성공회대학교출판부, 2000.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열린종교와 대화공동체》, 서울: 대화출판사, 2000.
-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한인철, 《종교다원주의의 유형》,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 한국종교학회, 《종교들의 대화》, (서울: 사상사, 1992)
- Arinze, Francis I. *Religions for peace*, Darton: Todd Press, 1985.
- Camps, A. *Partners in dialogue: christianity and other world religions*, New York: Orbis Books, 1983.
- Forward, M. *Inter-religious dialogue*, Oxford: Oneworld, 2001.
- Ferguson, John. *War and peace in the world's religions*, London: Sheldon Press, 1972.
- Gustafson Carrie & Juviler Peter. *Religion and human rights: competing claims?*, New York: M. E. Sharpe, 1999.
- Jack Homer A. *World religions and world peace: the international interreligious symposium on peace*, Boston: Beacon Press, 1977.
- Hick John & Askari Hasan, *The experience of religious diversity*,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 1985.
- Hillman, E. *Many Paths: A Catholic approach to the religious pluralism*, New York: Orbis Books, 1989.
- Huber, W. and Reuter, H. R. 《평화윤리》, 김윤옥.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Huntington, Samuel, *The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1997.
- Knitter, Paul F.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5.
- _____, *One earth many religions: multifaith dialogue & global responsibility*, Maryknoll: Orbis, 1995.
- Küng, Hans. *Christianity and the world religion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6.
- _____. *Projekt weltethos*, München, 1990. 안명옥 옮김,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_____. *A global ethic, the declaration of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London: SCM Press, 1993.
- _____. *A global ethic and global responsibilities*, London: SCM Press, 1998.
- _____.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relations*, 성공회대학교 강연, 2003.
- Olupona Jacob K. *Religion and peace in multi-faith Nigeria*, Ile-Ife: Obafemi Awolowo University Press, 1992.
- Panikkar, R. *The intrareligious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78, 김승철역, 《종교간의 대화》, 서울:서광사, 1992.
- Race, Alan. *Christians and religious pluralism: patterns in the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2.
- Sharma Arvind & Young, Katherine K. *Feminism and world religion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Swidler, L., Cobb, John B., Knitter, P. F. *Death or dialogue? from the age of monologue to the age of dialogue*, London: SCM Press, 1990.
- Swidler, L. *Religious liberty and human rights in nations and in religions*, New York: Hippocrene Books, 1986.
- Taylor, John B. *Religions for human dignity and world peace*, Geneva: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1986.
- Traer Robert. *Faith in human rights: support in religious traditions for a global struggle*,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1.

원고접수: 2005년 5월 3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 김은규

① 전공: 구약학 전공

소속: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② 관심영역: 구약학, 종교간 대화,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동양사상

③ 주요논저: 〈창세기 1장의 생명과 생태사상〉, 〈노장사상과 불교적 이해〉, 〈구약의 '고통'에 대한 불교적 이해〉,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

④ E-mail: micahkim@mail.skhu.ac.kr

Global Ethics And Religious Education of Korea

Kim, Un-guy
(Sungkonghoe University)

《Abstract》

The world is processing with capitalism, neo-liberal market and empire situation in the 21st century. USA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still have taken the initiative of power to the third world, and brought ecological devastation, militarism, war, regional hegemony, nuclear weapons. 'Global ethic' which means to integrate whole world came out in globalization contexts. Particularly it emphasizes the religious peace. Global ethic showed religious peace a fundamental resolution. However, I think it can not affect huge change to the contexts. I see the debate of Hans Küng's proclamation, 'without religious peace, there is no peace in the world' can be justified and hided the huge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and then it can be made a reverse use.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 of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worship in schools of Korea have to develop for choosing various types of programs, not for compel obligatorily. The quality of education in present school system will reconstruct in the wide view of peace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religious education has to search for the identity in it. The religious worship has to minimize, and school needs to reduce burdens to students who didn't get free choice of school according to the policy of ministry of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can improve the liberal arts course with peace education, teach to have a respectful mind for the differences, and naturally accomplish to get dialogue with religions. The goal of religious education in 21st century is to grow up mature religious people having global outlook, human rights and peace, and the leadership guiding the reconciliation between religious conflicts.

Key words: globalization, global ethic, neo-liberalism market, dialogue with religions, religious education, peace education, Hans Küng